

“논평”에 대한 답변

이 찬 우

(인천가톨릭대학교)

<질문> : 多종교 사회안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다른 종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답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1984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의와 행사가 천주교회에서 기획되어 시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회의가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였다. 이 회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중에 대한 천주교 신자들의 태도와 인식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천주교회 신자들의 타종교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피상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은 타종교를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들과 관련시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종교들이 갖고있는 교리나 내면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타종교들에 대한 태도에서는 배타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개신교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다른 종교에 비해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신교에 대한 태도는 교회의 일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부정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된다.

최근 한국 천주교회의 대표적 주간지인 「가톨릭 신문」 창간 70주년을 기하여 신문사가 <가톨릭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 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 중에 <한국의 주요 종교에 대한 천주교 신자들의 태도>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천주교 신자들의 타 종교에 대한 태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8개 종교(개신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천도교, 원불교, 통일교, 대순진리회)에 대해 가톨릭 신자들이 갖고 있는 호의도를 그 종교의 교리나 사상,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펼치고 있는 활동이나 역할을 구분하여 제시해 보기로 한다. 우선 교리나 사상에 대한 종교별 호의도를 보면, 신자들은 모든 종교에 대해 호의보다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①불교, ②유교, ③개신교, ④원불교, ⑤천도교, ⑥이슬람교, ⑦대순진리회, ⑧통일교의 순서로 배타적인 정도가 덜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①불교, ②유교와 개신교, ③원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④대순진리회, 통일교의 네 종교군에 따라 배타의 정도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활동이나 역할에 대한 종교별 호의도에 대하여 살펴보자. 두드러진 특징은 신자들이 각 종교들의 교리나 사상에 대해서 보다는 활동이나 역할에 대해 훨씬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불교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에도 근소하나마 배타적인면 보다는 호감 쪽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리나 사상에 대한 호의도면에서 유교에 뒤졌던 개신교는 활동이나 역할에 대한 호의도 측면에서는 유교를 앞지르고 있다. 그 밖의 종교들의 경우 배타성이 앞서는데, ①유교, ②원불교, ③천도교, ④이슬람교, ⑤통일교, ⑥대순진리회의 순서로 정도가 덜하게 나타나며, 교리나 사상에 대한 호의도면에서 대순진리회에 뒤졌던 통일교가 활동이나 역할에 대한 호의도면에서는 대순진리회를 앞지르고 있으나, 그 차이는 거의 무시할만하다. 교리나 사상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①유교, ②원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③대순진리회, 통일교의 세 종교군 사이에는 배타성 면에서 중요한 질적 차이가 발견된다.

이러한 결과를 10년 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1987년 조사에서는 원불교, 통일교, 대순진리회가 빠진 5개 종교만이 다루어 졌다. 먼저 교리나 사상에 대한 호의도면에서는 1987년 당시에도 신자들의 태도는 호감보다는 배타성 쪽에 가까웠으며, 배타성 정도의 종교별 순위도 이번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10년 사이에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의 태도가 크게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천도교와 유교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두드러지게 강화되었고, 다음으로는 이슬람교와 개신교가 비슷하게 크게 강화되었다. 다만 불교에 대해서만은 이같은 태도가 근소하게 강화되었을 뿐이다. 다음으로 활동이나

역할에 대한 호의도의 변화를 보면, 1987년 당시에 교리나 사상에 대해서보다는 활동이나 역할에 대해 훨씬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불교를 제외하면 다른 모든 종교에 대해 전반적으로 배타적인 태도가 강화되었다는 점이 발견된다. 10년 전에 비해 개신교와 유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약간 감소했으며, 이슬람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비교적 크게 강화되었고, 천도교에 대한 배타적인 정도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또 가톨릭 신자들은 1987년에도 불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개신교의 경우에도 근소하나마 배타성보다는 호감쪽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지만, 1998년에는 개신교에 대한 호의도가 근소하게 감소한 반면 불교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문제는 한편으로 민간신앙과의 접촉경험 증가 그리고 무종교인 및 타종교인과의 결혼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강화 등에서 확인되는 ‘종교적 관용성의 증가’와, 다른 한편으로 타종교의 교리나 사상 그리고 활동이나 역할에 대한 배타적 태도의 강화에서 확인되는 ‘종교적 관용성의 감소’라는, 이번 결과가 보여주는 명백한 모순이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모순은 신자들이 원칙적, 추상적 수준에서는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심지어는 더욱 강화하면서도, 실제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말하자면 신념 따로 행동 따로의 이중성을 내포하는 편의주의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지구화와 정보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타종교 신자들과의 접촉할 기회가 더욱 빈번하고도 강력하게 생겨나고 타종교에 관한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신자들 역시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유한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배타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구화와 정보화가 지배하는 시대의 미덕으로 권장되는 개방성·관용성·다원성 등을 수용하는, 이중적인 선택의 갈림길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 사정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